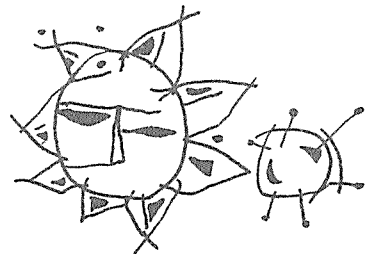


# ”우리집 건강관리”



- 아 빠 : 주원주
- 엄 마 : 오옥환
- 큰 딸 : 주아영
- 작은딸 : 주희영



**첫눈이** 내리기를 기다리는, 소녀의 두근거리는 마음처럼 약간의 설레임속에 한 가정의 행복한 공간을 찾아 강남구 신사동 설악 APT 3동 301호를 찾았다.

그곳에서 주원주(朱源柱) 씨(31才: 일진프로덕션 상무이사)는 큰딸 아영(4才)이와 작은딸 희영(7개월), 부인 오옥환(29才: 주부) 씨와 함께 오손도손 즐겁게 살아가고 있는 맥이다.

차분하고 조용한 분위기를 지닌 모습으로 반갑게 반겨 주는 부인 오옥환씨.

기자는 흐뭇한 미소를 짓는 모습을 보고 매력 만점의 여성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첫눈에 바로 이사람이 주원주씨의 영원한 반려자임을 느꼈다.

부인 오옥환씨는 대학에서 회화과를 전공한 탓인지 실내의 장식에도, 평범함속에서 무엇인가 독특하게 표현되고 있는 분위기 때문에 아담한 공간이 더 넓고 편안하게 보였다.

『평소 하루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세요』

『집에서 취미 삼아 화초를 돌보며, 가장 큰 일은 두딸이 무럭무럭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는 일이죠.』 오옥환씨는 큰딸 아영이가 모유를 먹지 못하고 자란 탓인지 어려서부터 병원신세를 많이 졌고 아직 도 펍 건강하다고 볼 수 없지만, 둘째 딸 희영이는 모유를 먹은 덕으로 건강하게 자라주길 바라다며 간절한 소망을 덧붙여 얘기한다.

엄마, 아빠를 닮아서 생선과 계란, 과일 일을 좋아하며, 책보기를 즐긴다는 아영이에게 오옥환씨는 결혼 할 때 결혼기념으로 장만한 “행운목”을 아영이의 혼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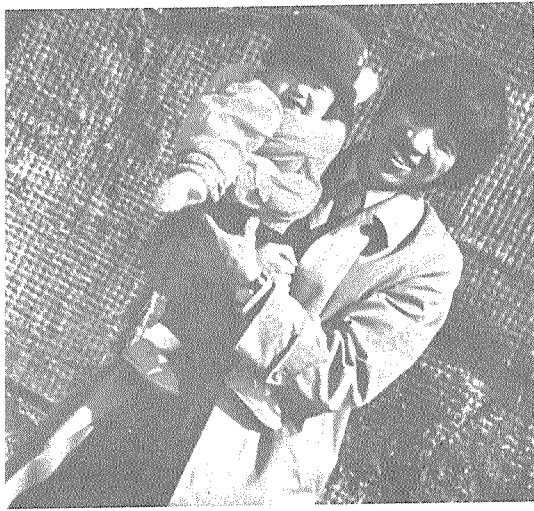
로 남겨 주겠다며 거실에 자리잡고 있는 우아한 행운목을 바라보고 남편 주원주씨를 바라본다.

대구가 고향인 주원주씨와 오옥환씨는 대학원시절 역사학을 전공한 부군과 함께 고적답사를 통해 전국의 명소는 거의다 여행을 했지만 세월이 지나갈수록 여행을 다닐 시간을 내기가 껴이나 어렵다며 앞으로는 따뜻한 봄이오면 온가족이 함께 봄나들이 계획을 세워볼 예정이라며, 가족나들이 계획을 살짝 귀띔해 준다.

여행, 바둑, 당구가 취미이며, 운동에도 특별히 많은 관심이 있어 운동이라면 무슨 운동이든 자신있다는 주원주 씨는 특히 야구를 즐기므로써 건강에 자신이 있었는데 “지금은 위도 좋지 않고 바쁜 사회생활에서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기가 어려워서, 정기적인 건강검진의 필요성을 너무도 잘 알고 있지만 실천에 옮기기가 어렵네요”라고 말한다. “시간이 나기를 기다리기 전에 특별히 시간을 내서 온 가족이 함께 건강검진을 받겠다고 다짐을 하기도 하는 모습에서 가정의 책임자로서의 책임감을 볼수 있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한 비결이 있으세요』

『특별한 것은 없지만 모든일을 낙천적으로 생각하고 ‘즐겁게 산다’는 신조로 잘 먹고, 잘 잘수만 있다면 건강하다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과식만은 하지 않아요, 아직까진 젊음의 열기로 건강을 지켰는데...』라고 말문을 맺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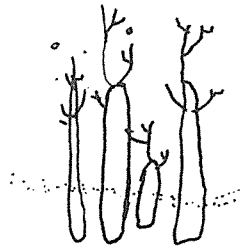
성실한 남편과 자상한 아빠의 자리를 지키는 그는, 출근길의 두딸이 평화롭게 잠든 모습을 볼때, 책임감이 생기고, 늦게 퇴근하는 아빠를 기다리며 고사리 같은 손으로 현관문을 열어주는 아영이의 귀여운 미소에서 가장 행복함을 느낀다고 한다.

결코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 있다는 생각이 기자의 가슴속으로 파고 들어온다.

취재를 마치고 현관을 나서면서 아영이와 희영이가 어서 커서 엄마 아빠의 커다란 사랑에 보답할 수 있도록 맑고, 밝고, 건강하게 자라 아들 못지 않은



효도를 하리라 생각하며, 마지막으로 따뜻하게 맞아준 두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듬뿍 전하고 싶다. (이혜진記)



이달의 정화표어

가정에서 뿌린정신 사회에서 꽃핀신뢰

• 한국건강관리협회